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손 (련재-9)

6. 생명의 회귀(回歸)와 무신론의 천적(天敵)

인류가 생명의 회귀를 다시 새롭게 론하는 조류(潮流) 속에서 중국은 70 년대에 '기공 고조'가 일어 났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기공을 련마했으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공이 명예를 얻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초상적인 공능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공능이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공능을 연기하는 과정 중에 점차로 공능을 잃게 되었으며 도대체 기공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유물'인가, '유심'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공능을 잃어버린 것은 본래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은 능력 있는 기공사들을 데려다 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해 왔음에도 의식형태 문제로 도리어 중공 내부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점점 장애가 놓여있었다.

그러나 1992 년, '파룬궁'이 세상에 나타났다. 파룬궁창시인 이홍지선생은 사람들에게 "나는 고층차에로 사람을 이끈다."고 알렸다. 리홍지 선생이 쓴 책의 전편에 수록된 요지를 밝히자면 광범위한 기공 애호가들에게 '기공'은 과거엔 수련이라 불렀으며 중국 전통문화라고 밝혀 놓았다. 파룬궁은 수련이고 수련자들에게 썸썸(眞善忍) 원칙으로 5 장 공법과 결합하여 씽씽(心性) 수련 중에서 생명이 승화되고 제고되며, 신체도 철저히 개변되어 나중에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가장 쉽고 통속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수련의 비밀을 알려 주었다. 7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중국에서만 1 억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나타나 사회의 각 계층과 구역에 퍼지

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완고한 '무신론자'였지만, 파룬궁을 수련한후 현대의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신체가 회복되는 신기한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공간의 존재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몇 십년 동안 주입되어 왔던 '무신론'이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를 통해 몇천년 이어져 내려 온 전통문화가 중국에서 다시 소생하였고, 생명의 본성인 회귀의 념원이 본래 불변의 진리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수련자들은 수련하는 외에 사회 제도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련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련공과 법학습 그들이 살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런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모두 박탈 당했을 때 파룬궁 수련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청원하기 위하여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편협한 독재자 강택민은 질투심이 치밀어올라 1999 년 4 월 25 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청원하던 그날 저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들에게 이렇게 썼다. "이번 사건은 1989 년 파문(역주: 천안문 민주화 사건) 후 북경에서 일어난 군중운동 중 사람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이 신봉하는 마르크스주의 리론, 유물론과 무신론이, 파룬궁이 선양하는 그것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인가? 정말 이러하다면 천하에 웃음거리가 아닌가!" 또한 강택민은 리지를 잃고 "석달에 파룬궁을 소멸시키겠다!"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이 사악한 공산당은 현대화 통신과 교통의 편리를 리용하여 중국의 천지 모두에서 파룬궁을 소멸하려 하였고 그 손길을 해외에 까지 뻗쳤다.

심금을 울리는 초불만회

2007년 7월 20일 밤, 미국 워싱턴기념비북쪽 광장에서 2천여명의 파룬궁학원들이 초불을 추켜들고 중공의 박해에 죽은 파룬궁학원들을 추모하면서 즉시 박해를 결속지을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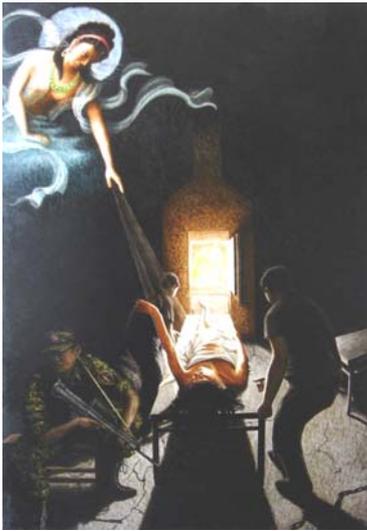


미국 워싱턴에서 집회를 열어 2,400 만 퇴당을 성원



2007년 7월 20일 아침, 2천여명 파룬궁학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집회를 열어 2천 4백만 퇴당을 성원했다.

채색그림: 생체장기적출 당한 파룬궁학원을 추모하며



[창작설명] 이 채색화의 주제는 한 파룬궁녀학원이 생체장기적출당한 후 혼미상태에서 화장로(炼人炉)로 끌려들어가는 장면이다. 한 보살이 날아오자 깨어난 그는 고통속에서 손을 보살한테 내민다. 중공악당 즐거들은 마성(魔性)이 뻗쳐 추호도 인간성이라곤 없다. 화장로를 향해 점차 이동해가는 화장침대를 보는

이 순간 수많은 정의 인사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즉시 박해를 멈출 것을 호소하는 외침 소리가 마치 귀전에 울려오는 것 같다.

악보 받은 안도현백하림업국 당위서기 양홍빈

양홍빈은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의 직접적인 계획책동으로 파룬궁학원 58 명을 강제로 세뇌반에 보냈고 50 명을 구류시켰으며 36 명을 로동개조시켰고 1 명을 판결했으며 2 명(왕철송.장옥란)이 박해를 받아 사망되었다. 이렇듯 나쁜 짓을 한 그는 지금 악보를 받아 백혈병에 걸려 모진 고통속에서 수혈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건

의

최근 길림성 "610"사무실과 정법계통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파룬궁박해음모계계를 꾸몄다. 2007년 7월 16일부터 길림성내 각 지역의 파룬궁학원을 또다시 박해할 새로운 계획을 제정했으며 검은 명단을 작성하여 대법제자를 체포하려고 한다. 장춘시에서는 금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량의 경찰을 동원하여 검은 명단에 따라 대법제자들을 마구 체포했다.

우리 연변지역에서도 구체집행내용을 제정하고 곧 실시하게 된다. 사악한 무리들이 마굴에서 나오니 대법제자들이 사악을 전멸하는 좋은 시기이다. 연변지역 전체 동수들은 제각기 발정념하거나 자발적으로 24 시간 릴레이식으로 발정념을 할 것을 건의한다.

만화: 어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3 퇴> 후 나는 살아났다

나의 이름은 단쌍이며 금년에 47 세이고 료녕성 림원시에 살고 있다.

2005 년가을, 여러 병원에서 나에게 <유방암 말기여서 극상해야 석달 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판결을 내렸다. 나의 생명이 위급한 이 시각, 파룬궁학원인 나의 조카 며느리의 권유한대로 <9 평공산당>을 읽어보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였고 <3 퇴>를 선포했다.

그후 암증이 사라졌고 오늘 까지 이미 2년 남짓한시간이 지났지만 나의 몸은 날로 좋아졌으며 집일과 밭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3 퇴>한후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평안을 찾게 되었다.



파출소 소장이 <9 평>을 나누어준다

하북성 모 파출소 소장은 대법제자인 안해가 늘 이야기해준 파룬궁진상을 듣고서 점차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해의 수련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파룬궁학원들의 수련을 적극 지지해 나섰다. 어느 하루, 출근전 그는 매 경찰의 사무책상위에 <9 평공산당>책 1 권씩 놓았다. 경찰들이 출근하자마자 <9 평>책을 발견하고 저마다 그를 찾아와서 이 정황을 회보했다. <"9 평공산당"에서 뭐라고 말했소?"하고 그가 묻자 <공산당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하고 경찰들이 대답했다. <말한것이 사실이라면 이 책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하고 그는 정색해서 말했다.

